

바닥이 7cm 정도의 灰層을 사이에 두고 上下二層의 燒土層으로 되어 있는點과 아울러 이 窯가 建設된 뒤 一回의 改修를 거친것임을 말하고 있다.

窯壁은 火口近處에서 좁아지고 中央部에서 若干 넓어지고 있는데 現在 露出된 部分에서는 兩壁間의 幅이 一·七m를 보이고 있다. 또 窯壁의 高는 아직 正確한 復原圖를 마련하지 못해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壁의 曲線으로 미루어 보아 最小 一m는 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窯의 길이는 發掘面積擴張이 不可能해 究明할 수 없으나 墳墓後部에서의 試掘結果 最小 一〇m는 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면 이 窯는 山麓의 緩傾斜面에 營造된 壇坫式 登窯였으며 이것은 日本의 古墳時代 須惠器窯나 現代의 韓國在來式窯와 共通되는 形式이다.

여기서 採集된 土器는 아직 未整理이지만 統一時代의 印文土器片은 하나도 없었고 大部分이 靑瓦色刻線文 또는 無文土器였고 器形으로는 三國時代後期라고 생각되는 다리가 짧은 高杯가 壓倒的이었다. 그러나 軟質赤色土器도 적지 않게 나왔으며 이러한 土器片들이 AⅧ에서는 九個의 層을 이루고 堆積되어 있어 앞으로 이 破片들의 整理를 통해 여기 一個 窯의 土器나마 形式變化의 實相을 把握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長興出土 金銅藥師如來立像

崔 淳 雨

一九六四年 四月 十六日 全羅南道長興郡 冠山面 玉堂里 山二三番地에 있는 傳 玉龍寺 자리에서 開懇作業中 白桂寅氏가 發見한 金銅藥師如來立像 一軀가 同月 二十二日 魯錫徑氏의 추천으로 全羅南道博物館에 入手되어서 그 후 國家歸屬措置에 따라 國立博物館에 移管되었다.

이 如來像은 瘠軀長身の 날씬한 體軀에 淡淡하고 해맑은 鍍金빛이 全

身의 凹部에 적지아 니 남아있고 保存이 잘되어서 첫눈에 非凡한 遺物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자름한 螺髮에 도 둠한 肉髻가 있고 목에는 三道、通肩으로 된 法衣자락은 그



현질한 體軀를 감싸며 양다리에 비늘져서 들이워져 있다. 바른손은 들어서 現掌하고 왼손은 가볍게 드리워서 藥壺를 들었고 面長한 相好에는 두눈이 유난스럽게 두드러져 보인다. 背面에는 어깨로부터 발목 부분까지 全身이 舟形으로 후벼 패여져서 片佛類에 가깝고 머리 뒤에도 둠글게 홈이 패여져 있어서 光背의 接着을 도움기 爲한 자취로 생각된다. 등뒤의 이 舟形 홈통안에는 바로 목 밑과 종아리 뒤 부분에 조그마한 突起가 하나씩 있어서 이것이 身光을 꼬여달던 자취임을 알 수 있었다. 또 覆蓮臺座는 常例가 아닌 七角으로 되어있어서 따라서 蓮瓣도 七瓣으로 되어 있다.

百濟 金銅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러운 單瓣覆蓮座이지만 이 蓮瓣에는 點孔線으로 무늬를 장식했던 흔적이 보이고 또 下臺와 覆蓮座사이의 中臺의 各面에는 眼象文으로 생각되는 點孔線의 흔적이 남아 있다. 佛體는 양발 밑에 달린 한개의 축으로 蓮華座구멍에 꽂아 接着시켰으며 像容의 表現와 技巧가 모두 輕快하고 샐-프한 맛을 주는 것이 特色이다. 七世紀 中葉으로 부터 七世紀 後半期에 걸치는 百濟系의 作品으로 생각되나 出土地의 傳 玉龍寺址에 대한 知見은 現在 그 寺址에 光背와 臺座가 具全한 如來石像 一軀가 남아있다는 말을 傳해들었을 뿐이며 東國與地勝覽長興郡 佛宇條에 보면 「玉龍寺在天冠山」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佛身高 九·二cm 全高 二·八cm 臺座 最大徑 四cm 臺座 一邊 一·

八 cm — 一·九 cm。

橫城 中金里 雙塔과 新垈里 石塔

— 橫城佛蹟 其四 —

鄭 永 鎬

一、中金里 東·西 三層石塔

甲川面中金里塔洞(俗稱 塔洞지) 四八四番地 李文善氏宅(三七歲) 앞 발가운데 東, 西로 三層石塔이 一基, 遺存한다(兩塔의 거리는 八 m 인) 東塔은 오래전부터 倒壞되어 塔材가 附近에 散亂한데 西塔은 各部에 多少의 磨損은 있으나 三層屋蓋까지 比較的 完形에 가까워서 全體의 規模나 樣式 및 手法 等を 알 수 있다. 西塔의 各部를 實測한바 規模가 같고 同一한 塔이므로 여기에 爲先 西塔에 對하여 略述코자 한다.

全高約 五 m 로서 二層基壇인데 上層中間部까지 埋沒되어 있어서 下層까지 除土 및 雜石의 除去作業을 하여 그 構造樣式을 알 수 있었다. 下層面石은 各面 二枚로 되었으며 中央에 撐柱 一柱와 兩隅柱가 整然히 刻出되었고 下甲石上面에는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다. 上基面石各面은 一柱의 撐柱로 兩分하여 二軀씩 坐像의 八部神像을 陽刻하였는데 各面石은 一枚 或은 二枚石으로 짜여져 있어 都合四枚가 넘는다. 上甲石은 四枚石으로서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二段의 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는데 各層塔身은 一石씩이며 隅柱가 刻出되었다. 屋蓋石 받침은 五段式이고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받침으로서 그 위의 屋身을 받고 있는데 三層屋蓋上面에는 徑一·一 cm, 深一五 cm의 擦柱孔이 있으며 落下된 露盤에는 徑一〇·五 cm의 圓孔이 貫通되었다. 落水面이 平薄하고 轉角의 返轉도 輕快한 편이며 各層에 遞減도 있어서 全體의 平均衡잡힌 雅淡한 塔이다. 屋蓋 및 落水面과 各層받침 手法 等은 奉化郡 春陽面 西洞里의 東西三層石塔과 同一한 系統이라 하겠는데 이런 點으로

보아 이곳 雙塔의 八部神像의 彫刻手法 이나 各部材의 짜임 이 주는 印象이 新羅下代로 推定케 한다.

倒壞된 東塔의 各 部材는 大部分 現場 原位置에 殘存하나 그中 初層塔身이 約 六〇 m 떨어진 東北 方밭에 옮겨져 있고 上基面石(八部神像) 이 洞里石橋로 使用 下基面石이 民家の 장독대 등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部材 들은 모두 收拾될 수

있으므로 原形의 復原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西塔도 埋沒部分을 整理하여 貴重한 雙塔의 一貌를 보았으면 좋겠다. 法堂址는 一部가 竅이 어 民家가 들어섰으며 그外 地帶도 모두 民家와 耕作地로 되어있어 다 른 遺構는 全혀 調査할 수 없는데 다만 石塔의 南쪽이 傾斜되어 있어 이곳이 過去 石築址가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이곳 石塔에 對하여는 「朝鮮 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九頁에 보이는 데 여기에는 一基만이 記錄되어 있으며 雙塔이라는 것은 全혀 알려지지 않다. 竹嶺以北 江原道地方 에 아직 雙塔의 類例가 發見調査된 바 없는데 이렇듯 貴重한 遺蹟을 早速히 復元하여 保護하는 當局의 施策이 時急하다 할 것이다. 實測値는 西塔(cm) : : : 塔身高 一層八五 二層二九 三層二四 幅 一層九四 二層八四 三層七三 屋蓋長 一層一六五 二層一四五 三層一二四이다.

